

미국發 ‘상호관세’ 오늘부터 한국도 영향권

15% 부과받아 대미 수출 영향 본격화
이차전지·화학품 등 K-소비재 적용
FTA 우세 사라진 車 경쟁 치열 예고
‘50% 관세폭탄’ 철강업계 대책 고심

세계 경제 질서 판도를 바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7일 0시1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한국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게 됐다.

관세 협상 타결로 예고된 것보다 관세율을 낮췄고, 경쟁 상대국인 일본·유럽연합(EU)과 유사한 조건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견어

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높은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한국 경제에 여전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통상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대(對)한국 상호관세 15%는 한국 시간으로 7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우선 시작했다가 각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집행 시기를 8월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당시부터 모든 나라에 이미 10%의 관세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가 오른 15%가 된다.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

거로 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추진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다.

이차전지나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 라면 등 K-소비재가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최대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정보기술(IT) 상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 향후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처럼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한다.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일본·EU와 같은 조건이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해 당분간 현행 25%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현행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도 상호관세와 별개로 유지된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조선 등 분야에 쓰이는 특수 철강이라도 일부 관세 면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포함해 의약품 등 품목 관세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예고해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히 완전히 견히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주력 시장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조래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관세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미 FTA를 통해 확보한 일본·EU 대비 유지해온 25%의 관세 우위를 잃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주력인 미국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배터리 업계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긴장하면서 생산지 추가 조정 등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활용해 통상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연합 부진 속에서 50%의 고관세를 계속 부과받는 철강 업계는 충격 속에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마지막 ‘앵콜 홈플러스 NOW’ 홈플러스가 오는 13일까지 마지막 ‘앵콜 홈플러스 NOW’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모델들이 이날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에서 마지막 ‘앵콜 홈플러스 NOW’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 불확실성에…증시 대기 자금 ‘역대 최고’

투자자예탁금 70조·머니마켓펀드 234조

시장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대기 자금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이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품목별 관세, 안으로는 세제 개편안 등 대형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높아진 경계심 속에 ‘실탄’만 장전하는 모양새다.

6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4월 기준 7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에는 71조8천억원으로 지난 2022년 1

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 중 하나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1일 70조원을 잠시 찍은 뒤 한 달 내내 60조원대로 내려갔다가 이달 들어서는 줄곧 7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역시 전일 기준 설정액이 233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Z세대 67% “비싸도 착한기업 제품 사겠다”

ESG 경영과 소비트렌드 조사

가치소비 통해 신념 적극 표현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확산함에 따라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가치소비)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만 17~28세(Z세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과 소비 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 Z세대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거나 중단하는 등 가치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적극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66.9%는 ‘조금 비싸더라도 ESG

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ESG 실천이 브랜드 선택과 제품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보이콧’하는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

Z세대 10명 중 6명 이상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63.7%)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Z세대만의 소비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들이 선택한 소비 키워드는 절약을 중시하는 ‘짠테크’(32.9%),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증명하는 ‘미닝아웃’(26.5%), ‘아보하’(23.3%) 등이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를 뜻한다.

Z세대들은 기업 ESG 활동의 진정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66.4%는 우려를 나타냈다.

ESG 활동을 진정성 없이 단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은 청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는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54.2%)은 ‘취업이나 이직 시, 지원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거나 입사 여부 결정 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냉방 후 송풍 모드 30분-1시간 가동하세요”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자가 점검 소개

열대야가 20일 넘게 발생한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에어컨 자가 점검 방법을 소개했다.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7월 에어컨 서비스 신청은 전달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서비스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데 신청 사례 중 약 30%는 제품 고장이 아닌 경우였다.

올바른 자가 점검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서비스의 설명이다.

먼저 냉방 가동 후 송풍 모드를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동작시키면 내부 습기가 건조돼 냉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 청소’나 ‘스마트 냉방 세척’ 기능이 탑재된 모델은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에

어컨 주변의 방향제, 디퓨저 등은 제거하는 게 좋다.

필터 관리도 필수다.

먼지 거름 필터는 2주에 한 번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전기 집진 필터는 3개월에 한 번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 가 행군 뒤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해 사용한다. 탈취 필터는 2-3개월 주기로 교체한다.

특히 에어컨 전원은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해야 한다. 멀티탭으로 다른 기기와 병행 연결하거나, 전원 코드를 연장한 경우 과부하 발생과 화재의 원인이 된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나주시사 061)335-0005

광양지사 061)793-6800

구례지사 061)782-4696

담양지사 061)383-5566

곡성지사 061)362-5746

고흥지사 061)832-6290

유동지국 222-8171

운암지국 529-3548

용봉지국 261-1503

신가지국 954-1420

양산지국 574-3745

하남지국 951-9954

운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문흥지국 261-9462

일곡지국 573-3200

첨단지국 971-7374

치명지국 371-9584

수완지국 955-0451

광산지사 944-0993

무안지사 061)453-3645

함평지사 061)322-0882

영광지사 061)353-5133

장성지사 061)394-3636

완도지사 061)555-0134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

+